

국립김해박물관 · 동의대학교박물관 공동 심포지엄

금관가야 출토 옥을 통해 본 대외교류

2019. 11. 22.(금)

9:30 ~ 17:00

장소 동의대학교 산학협력관1층
프라임 컨벤션 다목적홀



국립김해박물관
Gimhae National Museum



동의대학교박물관
DONG-EUI UNIVERSITY MUSEUM

모시는 글

국립김해박물관과 동의대학교박물관은 가야사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학술심포지엄
 “금관가야 출토 옥을 통해 본 대외교류”를 개최합니다.
 금관가야를 대표하는 유적인 김해 양동리 고분에서 출토된 다양한 종류의 옥은
 가야의 미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일 뿐 아니라
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교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.
 금관가야 유적에서 출토된 옥을 중심으로 금관가야의 위상을 논의하게 될
 이번 심포지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2019년 11월

국립김해박물관장 **오세연** 동의대학교박물관장 **김인호**

세부일정

시 간	내 용	발 표 자	토 론 자
사회: 김동원(동의대학교박물관)			
10:00~10:20	개회사 환영사 축사	오세연(국립김해박물관) 김인호(동의대학교박물관) 공순진(동의대학교총장)	
사회: 이현태(국립김해박물관)			
10:20~10:50	김해 양동리 유적 출토 수정제 구슬의 특징	양아림 (영남대학교박물관)	최혜린 (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)
10:50~11:30	유리옥으로 본 대외교류 - 1~4세기 일본열도와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-	사이토 아야(齋藤あや) (오스타구립항토박물관)	정인성 (영남대학교) 통역: 임지영(부산대학교박물관)
11:30~13:00	점 심 식 사		
13:00~13:30	김해 양동리 고분군 출토 유리로 본 가야의 문화	김규호 (공주대학교)	유혜선 (국립중앙박물관)
13:30~14:00	옥문화로 본 가야의 대외교류	조성원 (부경대학교박물관)	김동윤 (북천박물관)
14:00~14:40	일본열도의 1~4세기 옥문화와 대외교류	요네다 카츠히코(米田克彦) (오카야마현 고대키비문화재센터)	이창희 (부산대학교) 통역: 김효정(부산대학교)
14:40~14:50	휴 식		
14:50~17:00	종합토론 / 좌장: 신경철(부산대학교)		

* 상기 일정은 행사 진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